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 (Paraguay must be born again)(요3:7)
Esperanza del Paraguay(“파라과이의 희망”)

2018년 새해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파라과이 선교를 함께 지어가는 동역자 목사님, 성도님 귀하

2018년도 말씀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정성의 손길로 인하여 잘 달려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해도 사도 바울의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한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파라과이 현지의 고아원 법의 변경에 따른 선교전략의 수정

이미 12월 선교소식에서 말씀드렸듯 파라과이 현지에서 고아원 운영에 관한 법이 변경되어 선교부지로 구입한
자과론(City of Yaguaron)시의 땅에서는 선교사역을 지속할 수 없기에 빈민촌 지역인 <바냐도수르>에 위치한
<희망의 교회>에서 고아원과 무료기숙학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추진할 수 없기에 예배드리는
건물 구입을 위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 대통령 궁 뒤쪽이 험악한 강도 및 마약 소굴로 강가에 위치해 있는데 작년에 개발을 마치고 강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가의 개발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자 역시 강가인 <바냐도수르> 지역의 사람들도 얼마 안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건물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냐도수르> 지역에는 집문서가 없는 판자촌입니다. 전기는
들어오나 계량기도 없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수도만 기초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구입하면 수리를 하고 무료기숙학교를 위해 먼저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37:5) 하셨기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소식을 연초에 작성해 놓고 보내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 것은 건물 구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19일에 정말 엄청난 집을 구입했고, 지금은 그 옆 건물도 계속 기도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12,000.00 이며 약간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바냐도수르> 지역이 물난리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신을 했지만 저희가 구입한 건물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냐도수르> 지역에서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있는데 사고 싶고, 사려고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 집은 전체가 물에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조금만 일찍 와서 그 집을 구입했으면 지금은 구입해 놓고 사용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또 그 건물 옆에 것도 팔겠다고 해서 시청 직원이(땅이 나라 것이기에 시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와서
건물의 칫수를 모두 재고 계약 날짜까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사지를 못했는데 그곳 또한 물이
집 안까지 가득 찼습니다.

‘자과론’시의 선교부지가 나라법의 바뀜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빈민촌의
<바냐도수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시기에 너무 감사하답니다. 할렐루야!
건물은 낡았지만 건물을 구입하면서 성령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영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내가 회의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학교 앞이니까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역에 앞장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2월 중으로 준비를 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매 주 1번(금요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전체 160명의 학생들이 빈민자의 아이들입니다.

아침 먹는
것조차

힘들기에 당연히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하고 가난은 대물림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실시하지만 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자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성탄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23일(토)에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사방에 벽이 없고 지붕만 있는 예배 처소였기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와 식사 그리고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더운 여름이고 비가 내리는 탓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구입한 건물에서 더 아름다운 성탄축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 하셨기에 작지만 최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섬기는 것이 제게는 참 기쁨입니다.

길거리에 피었다가 사람의 발길에 차이고 밟히는 풀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이들도 지금은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고귀한 사람들로 쓰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되는



많이

※2017년 출석상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잘 출석한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선물은 뉴저지에 있는 한 선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빈민촌의 아이들이 받기에는 푸짐했는데 우 운동화 여러 켤레로 그곳의 아이들이 쉽게

받을
물론
더 많
이 번
5년이
여러
앞으
그리
성령
미국
항상
하시

2018년 기도 제목

1. 희망의 교회에서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2. 희망의 고아원 준비를 위하여
3. 희망무료기숙학교 준비를 위한 방과후 학교 준비를 위해
4. 재건축을 위하여
5. 파라과이 선교 2차 5개년계획의 구상을 위하여
6. 성령충만의 지속을 위하여

- 미국 주소: 1161 Valley Oaks Drive • Lewisville, Texas 75067
- 이 름: All Nations(David H. Nam)
- e-mail : davidnam1128@gmail.com / 카카오톡ID : dnam1128
- 현지 전화번호: (011595) 0994-796-900(핸드폰)

시간이
자

풍성케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